

## 격려사



신석민  
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장 /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 한국 고분자 과학의 반세기, 대한민국 소재 강국의 기틀을 닦다

안녕하십니까. 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장입니다.

대한민국 화학과 소재 산업의 근간을 세우고 학문적 자부심을 지켜온 한국고분자학회의 창립 50주년과 그 위대한 여정을 기록한 ‘한국고분자학회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76년, 불모지에 가까웠던 환경에서 고분자 과학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던 학회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술 자립을 이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한국고분자학회가 걸어온 길은 곧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강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글로벌 경쟁력과 리더십 확보의 주역이었습니다. 1996년과 2021년,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 대회인 ‘IUPAC MACRO’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우리 과학기술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으며, 1989년부터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IUPAC)과 협력하며 국제 학술 표준 설정을 주도해 온 점은 국제적 리더십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둘째, 국가 전략기술 및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분자전자, 의료용 고분자, 에너지 고분자, 그리고 인공지능과 계산과학 부문에 이르기까지 7대 전문 연구 부문을 통해 단순 연구를 넘어 에너지, 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회원의 약 25%가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 것은 타 학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차세대 인재 양성의 요람이었습니다. 1977년 200여 명에 불과했던 학생 회원이 현재 2,100명을 넘어서며 10배 이상 증가한 것은 우리 고분자 과학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50년,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AI)은 현대 문명의 근간을 재편하는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 운영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전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특성을 가진 미래의 도전을 마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에 발간된 50년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혁신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026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IUPAC-PSK50’ 기념 컨퍼런스가 다시 한번 고분자 과학의 미래 지평을 열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헌신해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한국고분자 학회가 앞으로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으로서 더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학관련학회연합회 회장/한국화학연구원 원장 **신석민**